

북한 주체심리학의 요구와 변천 과정 연구*

이형중**

본 연구는 주체심리학의 태동 배경과 변천 과정을 분석한 글이다. 북한의 대내외 상황과 주체사상이 북한의 심리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해방 이후 이북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의 우민화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심리학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자원이 모두 부재하였다. 소련에서 도입한 선진 심리학은 아쉽게도 북한의 현실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결국 강대국 사이에서 주체의 길을 택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과 열악한 교육현실이라는 대내외 상황이 맞물려 주체심리학이 개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에 따른 주체사상의 과도기적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탓에 주체심리학은 불안정한 이론으로만 남게 되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심리학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었으나 주체심리학은 수령 중심의 사상의식 강화를 위한 주체철학의 연장이었을 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심리학이 초기의 필요와 그 목적에서 벗어나 반사대주의, 민족주의가 강화된 수령 중심의 주체심리학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체제 이완에 대응하는 인간개조의 필요와 교육 개선의 여전한 요구는 향후 북한 심리학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북한, 주체사상, 사회주의심리학, 주체심리학, 인간개조

* 이 연구결과물은 2021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1. 들어가며

집단주의 체제의 북한 사회에도 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개인주의를 비사회주의적인 것이라 배격하는 사회에 개인을 연구하는 학문이 허용 혹은 통용된다는 사실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더군다나 심리학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의 심리학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컨대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규율하는 것일 수 있다. 전체에 조화되어야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론일 수도, 공고한 전체주의를 기획하기 위한 사상통제의 기능적 성격을 띤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북한의 심리학을 해명하고자 한다.

심리학은 어떠한 행동을 발동시키거나, 언어발화나 감정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을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주요 접근법 중 하나인 초기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의 학습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으로 설명된다. 두 개 이상의 무선적인 생각이나 자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합되어 특정 행동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에게 먹이와 함께 종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연합하여 학습된다면, 이후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먹이를 앞에 둔 것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다. 이는 러시아의 저명한 생리학자인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1849~1936)의 ‘파블로프의 개’ 실험의 요지이다. 그의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은 초기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자부심이었다. 이는 당

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소련의 선진 과학으로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에 맹목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른다.¹⁾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심리학도 소련 학문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들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 고유의 심리학을 주체심리학으로 구분하고²⁾ 초기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심리학은 소련심리학, 서구의 심리학은 현대심리학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국내에서 확인된 주체심리학 교재는 모두 3편으로 1974년 발간된 『사회주의심리학』³⁾과 1988년 발간된 『심리학개론』⁴⁾, 2000년 발간된 『사회주의아동심리학』⁵⁾이 해당한다. 이들은 북한의 표현으로는 ‘위대한 주체사상이라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주체의 심리학적 성과물’들이다.

북한의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는 사실 부족한 편이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마저도 철학의 일부로서 간주하거나 단편적으로 그려보는

- 1) 파블로프 학설이 북한과 중국에 수용되는 과정과 그 영향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선희·김옥주,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보건의료계 사상투쟁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제22권 3호(2013), 801~846쪽; 유연실, “1950년대 중국의 파블로프 학설 수용과 의료 체계의 변화: 보호성(保護性) 의료제도의 확립을 중심으로,” 『의사학』, 제29권 2호(2020), 613~672쪽.
- 2) 본 연구는 ‘주체사상에 기반하여 만든 북한의 독자적인 심리학’을 주체심리학으로 정의하였다. 사실 주체심리학은 북한이나 학계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아니며, 북한이 서방 현대심리학을 “부르조아적”인 것이라 비판하며 개발한 ‘주체의 사회주의심리학’을 김경미(2018)가 편이상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미, “북한 심리학의 형성과 변화 연구: 『교원선전수첩』 기사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78쪽.
- 3) 집필위원회, 『사회주의심리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4).
- 4) 리제순, 『심리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5) 전극내·최정순·전사홍, 『사회주의아동심리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데 그쳤다.⁶⁾ 따라서 단일 교재에 대한 분석⁷⁾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일련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교원선진수첩』에 나타난 북한 심리학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⁸⁾ 2000년 이전 시기의 주체심리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주체심리학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민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사상통제와 체제결속을 위한 인간개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그간 북한의 정치적 지형 변화와 권력승계 과정, 주체심리학의 근간인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공백을 보완할 뿐 아니라, 향후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주체심리학의 변천 과정

6) 김일성종합대학 심리학과가 철학부 내에 개설되었듯, 심리학이 주체철학 내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관련 연구는 이병창, “해방 이후 북한철학사: 의식, 문화, 도덕, 심리에 관한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5권 2호(1994), 96~132쪽; 이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제5권 2호(1994), 11~37쪽; 김익현, “주체사상 체계화 이후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 제50권 2호(2010), 65~102쪽 참고.

7) 도홍렬은 1974년 발간된 북한 심리학 교재를 분석하여, 주체사상을 합리화하려는 초보적 설득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을 반복하여 시도하는 전형적인 우민화 방식이자 결국 김일성을 위한 심리학, 김일성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도홍렬, “사회주의 심리학의 비판,” 『북한학보』, 제8권(1984), 193쪽]. 배영기 역시 사회주의심리학이 북한 주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배영기, “북한 교육현실과 ‘사회주의심리학 교재’ 비판,” 『북한』, 제184권(1987), 170~179쪽].

8) 김경미(2019)는 2003년 무렵부터 ‘주체심리학’에서 ‘우리 식 심리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체심리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체심리학’ 바탕 위에 서구의 현대심리학을 활용하여 ‘우리 식 심리학’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경미, “교원선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2019), 160쪽.

을 살펴볼 것이다. 그에 앞서 남한의 사정과 달리 초기 심리학자가 부족했던 이북의 사정과 최초 도입된 소련심리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에 주체심리학과 소련심리학의 병합이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북한이 심리학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은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한국전쟁 이후 소련심리학 도입과정을 검토하며 북한의 초기 심리학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분석 시기를 2000년까지로 한정하여⁹⁾ 『사회주의심리학』, 『심리학개론』,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변천 과정과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¹⁰⁾ 마지막 4장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체심리학에 대한 논의와 그 의의를 제시하였다.

2. 북한의 초기 심리학

1) 이북 지역의 공백과 심리학자의 확보

주체심리학의 태동 배경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초기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해방 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자. 현대적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근대화와 국권수호를 위

9) 분석 시기를 이처럼 한정된 이유는 2000년 『사회주의아동심리학』 발간 이후 추가적인 성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 이후부터 서구의 현대심리학 이론들을 소개하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등장은 2003년이 아닌 2000년으로, 1판은 주체89년(2000), 2판은 주체92년(2003)에 발간되었다. 김경미, “교원선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169쪽.

10) 본 연구의 2장과 3장은 저자가 집필 중인 “북한 주체심리학 연구”(가제)의 일부를 수정·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1900년 초경이며, 1907년 발간된 『심리학교과서』가 최초의 심리학 서적으로 알려진다.¹¹⁾ 그 무렵부터 일본에 유학한 이들이 심리학을 접하여 차츰 소개하였으며, 일부 선교사들이 세운 전문학교에서도 미국인 교수가 심리학을 강의했다고 전해진다.¹²⁾ 그렇더라도 심리학은 거의 대부분 192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철학과에서 최초로 심리학 전공이 시작되었다.

당시 경성제대는 일본인들도 동양 최고의 시설이라 인정하는 심리학 실험실을 갖추었으며, 여기서 임철재, 윤태림, 이진숙, 이의철, 이본영, 서명원 등 소수의 한국인들이 일본 학자들로부터 심리학을 전공하였다.¹³⁾ 해방 이후 임철재와 이재완은 사범대 교수직을 맡았으며, 1946년 9월 서울대학 심리학과가 창설되어 이진숙, 고순덕, 이본영이 교수직을 맡는 등 차츰 남한에 심리학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¹⁴⁾

11) 『심리학교과서』는 일본에서 번역한 서양 심리학을 김하정(金夏鼎)이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이용익이 설립한 출판사 보성관에서 발간했다. 목차는 감각, 지각, 관념, 판단, 정념, 의지, 주의, 행동 등으로, 당시 서양의 심리학 성과들을 번역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당시 일제강점기의 지식인들은 애국계몽을 위해 선택적으로 일본 및 서구 문물을 수용하였는데, 이 책 역시 목차 및 어휘, 내용이 일부 윤색되어 재구성되었기에 번역보다 번안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익용, “식민지 시기 『심리학교과서』와 계몽,” 『대동철학』, 제91집(2012), 212쪽.

12) 당시 유아사범과에는 심리학이나 아동심리학 강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통용될 만큼 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차재호, “한국심리학의 발전과정과 현재,” 『한국사회과학』, 제27권(2005), 168쪽.

13) 해방 후 1946년 2월 경성제대 심리학 전공의 임석재, 이재완, 이진숙, 방현모, 성백선, 이본영, 고순덕이 지금의 한국심리학회와 모체인 조선심리학회를 결성하였다. 이 7명 외에 경성제대에서 수학한 윤태림, 이의철, 서명원이 있었다. 정리하자면 1946년 당시 남북한 통틀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10명이었으며, 모두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서양의 심리학을 수학했다. 위의 글, 170쪽.

당시 심리학 전공자는 경성제대에서 수학한 이들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북 지역에 심리학자는 부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46년 9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이 개교하였다. 종합대학설립안에 심리학 실험실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로동신문』도 심리학 실험실이 개설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¹⁵⁾ 정작 김일성종합대학 현황 및 조선중앙연감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짐작컨대 서울대학교, 즉 전신인 경성제대의 심리학 실험실에 뒤처지지 않고자 의식했던 듯하다. 당시 북한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부족하여¹⁶⁾ 교수요원을 남한으로부터 초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¹⁷⁾ 파격적 대우를 약속받은 상당수 지식인들이 월북했으나¹⁸⁾ 경성제대 출신의 심리학 전공자

-
- 14) 이본영은 1947년 중앙여자대학(1948년 중앙대학으로 변경)으로 옮겼다. 차재호, “한국심리학의 발전과정과 현재,” 172쪽.
 - 15) “먼저 신교사의 설비를 본다면 110여개의 실을 가지고있으며 그중에는 실험실 강좌실 대강실 건국실 도서관 회의실 강당 학생구락부 동식물표본제작실 대학본부사무실 등이 있다. (중략) 이 밖에 락랑고분의 발굴품을 주로한 고고학 박물관과 심리학 실험실 등이 있다.” “인민의 힘으로 준공되는 우리의 김일성종합대학 오는 10월 10일 준공식,” 『로동신문』, 1948년 10월 9일.
 - 16) 서울대학교에서 20명의 교원을 충원하였으며,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외국인 학자들을 초빙하였다. 이들의 전공은 무기화학, 수리물리, 인민경제, 상품학, 인체 및 동물 생리학, 중국 문학사 등으로 심리학 교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근식·김윤애·임수진,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7권 1호(2017), 115~121쪽.
 - 17) 일제강점기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의 남북 간 격차도 컸으나, 해방 후 지식인과 기술자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남한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6년 초, 남한의 고등교육기관은 북한에 비해 학교 및 교원, 학생수에서 10배 이상 앞섰다.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세아연구』, 제98호(1997), 95~130쪽.
 - 18) 이북 지역의 대학 교수직 제안과 2배 내지 6배 많은 급여, 소련 유학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과학기술자와 교수요원을 충원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러한

는 모두 남한에 머물렀다.

북한의 심리학에 대한 요구는 이 무렵부터 절실했다. 북한은 1946년 11월 소련의 아동학연구소를 견학한 이후, 위생과 보육, 교육 분야의 낙후성을 절감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 부문에의 적용을 위해 심리학적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레닌그라드의 아동학연구소를 견학하고 (중략) 연구가 극고도로 발전된 것을 보고 경탄을 이기지 못하는 동시에 한시바빠 이 연구의 성과를 배워서 우리의 소아과치료와 학교위생과 가정보육에 큰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될 것을 통감하였다. (중략) 소련의 어린이를 어떻게 리상적으로 양육하나 하는 과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꾸준히 연구하여 나왔다고 한다. (중략) 어린이의 독특한 세계가 있고 심리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성격상으로 특이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들의 양육과 치료는 어른들의 과학과 기술을 다소 참작하여 베푸는 정도로서는 완벽을 기할수 없다. (중략) 어린이의 심리에 맞은 지도를 받으므로 결국 조금도 손색이 없는 진도를 유지해나갈수 있는 사랑의 시설이다.¹⁹⁾

이북 지역은 노동자와 과학기술자가 부족했으며 일제강점기의 우민화 정책 탓에 문맹률이 높았다.²⁰⁾ 교육을 통한 문맹퇴치와 국가 건

북측의 유인력과, 남한의 국대안(국립서울대학안) 파동과 관련된 많은 교수들에 대한 파면, 감시 불이익 등의 불평등으로 인한 배척력이 맞물려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이동하였다. 위의 글, 104쪽.

19) 강조는 필자. “쏘련견학보고 소련인민교육,” 『로동신문』, 1946년 11월 14일.

20) 당시 문맹률은 이북 지역 성인 인구의 90%에 가까운 230만여 명으로, 김일성이 1946년 11월 2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문맹퇴치운동의 광범위한 전개’를 주장할 만큼 이는 식민잔재 청산과 국가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

설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 대학 설립을 통한 엘리트 양성은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선진 학문과 교육 제도를 접하여 북한은 당장 보육과 교육 부문이 얼마나 낙후된 수준인지 절감했던 듯하다. 무엇보다 취학 계층에 대한 교육 성과가 부진함을 문제시하며 심리학 교원 충원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²¹⁾ 그러나 교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으며 배치된 교원들조차 그 역량은 미흡했었다.²²⁾

이 시기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중략) 과중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폐풍도 있었다. 다수 경우에 아동의 지식 습득의 체계성과 공고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946년 말 교육국은 지방 학교 학생들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검열하고 각 도 교육부장 회의에서 총화한 결과, 일반적으로 교수 사업의 수준이 저렬하며 학생들의 성적이 락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³⁾

구], 제25집(2005), 339~368쪽.

- 21) “새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는 논리학과 심리학을 교수한다. 이과정의 교수들은 다수 어학에 대한 고등지식을 소유한 교원 또는 논리학 및 심리학교수의 경험을 많이 가진 자들로 준비될 것이다.” “중학교에서 논리심리교수,” 『로동신문』, 1947년 5월 6일.
- 22) “학생들이 자기학습에 대한 열성이적었고 출석률이 90%를 더넘지못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세포에서는 이러한데대하여 무관심하였었다. 모든것을 상부에만 의존하였었다. 그런데 2학기에 들어서면서 우선 교원이 당원들의 책임감을 일층 높이는 문제와 특히 학생들의 생활형편과 심리동태를 옹계포착한 기초위에서 그들을 지도함이 중요한 과제로 나섰다.” “교원들의 책임성을 높여 학생들의 실력 일층제고,” 『로동신문』, 1950년 5월 20일.
- 23) 강조는 필자. 교육도서출판사,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63~64쪽.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심리학적 지식의 부재는 서로 연동된 문제였다. 어린이들과 학생의 심리를 옳게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교육을 펼쳐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모두 부족했었다. 그 해결책은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과 아동심리학을 활용한 교원 역량의 제고였다. 이후 1951년 김일성종합대학은 교육심리학 강좌를 개설하였으며,²⁴⁾ 전쟁 시기임에도 이동문고를 통해 각급 학교에 심리학 서적을 보내어 교원들을 지원하였다.²⁵⁾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심리학 및 아동심리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노력이었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본영은 그들의 철수와 함께 월북하였다.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완을 포함, 북한은 한국전쟁 시기 심리학자 2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이북지역에 심리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심리학 실험실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므로,²⁶⁾ 월북(또는 납북)한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역

24) 다음 기사를 통해 1951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심리학 강좌가 개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대학 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은 요항에 의하여 연구생을 모집함 (1) 모집 인원 맑스-레닌주의 기본강좌 철학강좌 물리학강좌 력학강좌 수학과 무기화학강좌 유기화학강좌 동물학강좌 식물학 지리학강좌 교육심리학강좌 조선문학강좌 조선어학강좌 신문학강좌 로문학강좌 로어학강좌 영어문학강좌 조선사강좌 세계사강좌 국가와 법리론강좌 민법강좌 형법강좌 정치 경제학강좌 계획경제학강좌 재정학강좌에 약간 명 합계20명으로함.”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생 모집요항,” 『로동신문』, 1951년 10월 10일.

25) “지난 9월 1일 본도서관에서는 『교양론』 『심리학』 『쏘련에서의 교원들의 교수사업』 등의 서적으로된 교원이동문고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에 파견함으로써 교원들의 사업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 “도서열람사업 활발히 추진,” 『로동신문』, 1951년 9월 14일.

26) 1946년 역사문학부는 조선사학과, 조선문학과, 외국문학과, 세계사학과, 지리학과, 교육학과, 철학과로 구성되며, 1953년부터 56년까지 김일성대학교 역사학부는 조선

할 수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당시 월북 지식인들의 거취를 고려할 때,²⁷⁾ 이본영과 이재완은 주요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교수 요원으로 배치되지 않고 교원 양성을 위해 복무하거나, 연구소에 배치되어 북한의 초기 심리학 발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해방 직후 소련의 원조를 통해 심리학 서적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시에 교육시설들과 함께 소실되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기계적으로’ 직역한 것이기에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²⁸⁾ 한국전쟁기와 전후 소련의 의사들이 북한에 원조를 올 때 선진 소련학문인 파블로프 학설과 심리학 서적들이 소개되어,²⁹⁾ 전쟁 이후 번역 작업을 통해 차츰 북한의 초기 심리학을 형성

역사, 세계역사, 철학으로 구성되며 심리학과는 독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 128~129쪽; 1954~55년, 46~47쪽]. 한편 1966년 김일성대학 철학부는 조선철학, 서양철학, 논리및심리학과로 구성되었음을 볼 때, 교육학과 철학과에서 심리학과가 분리된 것이 확인된다[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서울: 한백사, 1988), 153쪽].

- 27)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요원과 주요 직책은 월북한 지식인보다, 이전부터 북한에 있던 이들이 대체로 맡았다. 북한을 상징하는 최고의 대학이므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상성까지 겸비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기에 월북한 이들은 북한에 대한 선호의지가 확고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사상성이 약점이 되어 임용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등, 고립적이거나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며 특정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106, 115쪽.
- 28) “전쟁으로 교육 도서, 교육 요강들이 소실됨에 따라 1952년 11월 교육성에서 기간 교과서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총화한 결과 다양한 결함들이 지적되었다. 각 학년별 과목별 횡적 종적 관계가 부족하며 아동 학생들의 지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중략) 선진 국가의 교재들을 일부 기계적으로 직역하여 채용한 결과 우리나라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들이 게재되었다.” 교육도서출판사,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128~129쪽.
- 29) 한선화·김옥주,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805쪽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 소련심리학의 도입과 그 특징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 원조와 개입, 그중 가장 진보된 형태라 평가받는 소련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북한은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다. 이 시기 도입된 심리학 교재가 번역되어 1958년 발간되었는데,³⁰⁾ 흥미롭게도 이 책의 역자가 리본녕(이본영)으로, 경성제대 출신의 월북 심리학자가 북한의 초기 심리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³¹⁾

『심리학』에서 심리학은 ‘뇌수의 기능이며 객관적 실재의 반영인 심리 현상에 관한 과학이다’로 정의된다.³²⁾ 소련심리학은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선진 학문으로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파블로프의 학습이론, 고등 신경생리학에서 서구의 현대심리학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인체의 생리적 특징과 화학작용에 대한 세세한 연구를 제시하여 인간 이해에 대한 관념론적 접근을 반과학적인 것이라 비판하며, 물질이 일

30) 이 책은 1951년경 이동문고를 통해 교원들에게 배부된 심리학 교재와 다르다. 『심리학』은 1956년 소련의 국립교육도서출판사가 사범대학용 심리학 교재로 발간한 것을 북한에서 번역하여 1958년 발간한 것이다. 역자에 의해 윤색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당시 소련의 선진 학문을 신봉하던 북한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듯하다. 아아스미르노브(A. A. СМІРНОВА), 『심리학』, 리본녕 옮김(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31) 남한의 경우 7명이 학회를 결성하고 심리학을 이끌었던 반면, 북한은 그럴 만한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납북된 이재완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등의 사상성이 문제시되어 숙청당했거나, 주요 요직에 배치되지 못하고 교원 양성 기관이나 연구소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조심스레 추정할 뿐이다.

32) 위의 책, 7쪽.

차적이며 인간 심리와 의식은 이차적인 것으로서 객관적 현실이 뇌수에 반영된 결과라는 관점을 취한다. 즉 심리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뇌수에의 객관적 세계의 반영이 어떻게 형성되며 완성되는가, 인간의 동작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인간의 심리적 제 속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주목한다. 사회적 외부 작용과 인간의 신경 제 과정이 연결되는 방식과, 과거의 것들과 맞물린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관점은 소련심리학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파블로프의 학습이론에 기반함을 드러낸다.

소련심리학의 또 다른 특징은 엄격한 방법론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 맑스-레닌주의가 결합되어 사회주의적 인간관을 추구하지만, 그에 대한 심리학적 방법은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선진 기술, 노동 조직 문제, 선진 작업 방식의 습득, 노동 생산 능력의 제고,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 등에 응용할 때, 관찰과 실험 등의 엄격한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실천적 의의를 중요시하며, 일체의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개선 및 완성을 위해 복무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다. 심리학의 역할 중 후대의 교양 및 교수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하위 분과인 아동심리학은 아동 심리발전의 연령적 특수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교수교양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다.³³⁾ 아동 심리발전과 학생들의 심리발전 역시 환경이라는 자극과 그 결과로서 적응과 행동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수교양 사업의 효과

33)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심리학』에 아동 심리발전의 연령적 특수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오점이다. 쓰미르노브, 『심리학』, 23쪽.

를 위해 반드시 과학적 지식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소련심리학은 인간의 인식의 제 과정과 감정, 유물론적 관점의 의지적 행동과 숙련의 문제, 집단과 교육 및 노동이 아동의 심리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당시의 신경생리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이론에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의미로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북한이 소련의 선진 학문을 사대주의적인 것이라 멀리하기 이전이자,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인 만큼, 수령 중심의 항일혁명전통이나 사상의식 교양, 수령의 우상화 등과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소련심리학을 북한의 초기 심리학으로 분석하면서도, 주체심리학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이다.

한편 소련심리학이 서구의 현대심리학을 ‘부르쥬아 심리학’이라 배척하였기에, 북한 역시 정신분석학, 기능주의, 게슈탈트 심리학 등을 비판하며 일절 거부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들은 상이한 물질 환경에 의해 영향받으며 인격이 형성되므로, 서구의 현대심리학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주의 심리학만이 타당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은 소련의 선진 심리학을 ‘기계적으로’ 직역하여 수용하려 하였다. 물론 북한의 교육현실에 맞도록 자체적 해석이나 주도적 구성을 이끄는 인적자원이 부족했던 영향일 수도 있다.³⁴⁾ 그러나 북한은 소련심리학을 현실에 반영하려던 노력이 시행착오였다고 판단한다.

34) 그러나 선술하였듯, 1900년대 초반 도입한 서구의 현대심리학을 지식인으로서의 김하정이 대중의 교양을 위해 주도적으로 윤색하고 구성하였던 것과 구별되는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1953년 8월 5일 북한은 교육과정안 개정을 통해 고급중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듬해 이를 제외하기로 번복한다.³⁵⁾ 사범대학의 교원 대상 심리학 강좌는 지속되었으므로 이를 북한 심리학의 쇠퇴 혹은 소멸로 해석하기보다,³⁶⁾ 적절한 검토를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결과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60년 초까지 레닌의 반영론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등의 소련심리학 원리들을 간간히 소개하며 교육 부문에서의 적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³⁷⁾ 1950년대 북한은 강대국으로부터 원조와, 그에 뒤따르는 간섭으로 인해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소련의 선진 학문을 북한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절박하게 제기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의학이론적인 논쟁에 말려들어 신경주의나, 체액주의나 하는 공허한 이론교육에 치중되는가 하면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와 동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의학연구내용을 주석도 없이 그대로 가르치는 엄중한 현상이 나타났다.³⁸⁾

35)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나라 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데에서 당시 소련심리학을 교육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확인된다. 교육도서출판사,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206~209쪽.

36) 김경미, “교원선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154~156쪽.

37) 다음을 참고. “지각과 학습과의 관계,” 『교원신문』, 1960년 1월 27일; “무조건 반사와 조건반사,” 『교원신문』, 1960년 2월 13일.

38) 강조는 필자. 홍순원, 『조선보건의사』(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1), 519쪽.

사실 이러한 곤경의 주된 원인은 소련심리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북한 교육현실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또는 현장인력의 부족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의 필요는 이론과 실험을 중시하는 선진 과학보다, 문맹률 퇴치,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빠르고 분명한 심리학적 응용이었다. 그러나 생리학 이론과 실험을 중시하는 소련심리학은 학령기의 교수·교양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체제 결속을 위해 군중을 통제할 묘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이미 부르주아적이라 배격된 서구의 학문을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우리 상황에 맞는 심리학을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었다.

1960년대 초부터 ‘주체의 확립’의 기치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한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 지도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신경주의냐 체액주의냐 하는 공허한 이론’이 아닌 북한의 독자적인 심리학을 개발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때마침 고유한 철학 체계가 등장한 것이다.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삼아 개발한 북한식 심리학, 즉 주체심리학은 과연 교육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었을까? 이를 위해 그 변천 과정과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주체심리학의 요구와 변천 과정

1) 주체사상의 지배적 영향

북한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학 적용의 실패 원인을 ‘우리나라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와 동떨어진 남의 나라

에서 하고 있는' 학문 때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심리학의 독자적 개발의 당연한 필요와 연결된다. 그러나 북한이 소련처럼 고등생리학 실험을 할 여력은 없었기에 노선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맑스-레닌주의를 진일보시켰다며 자평하는 주체사상을 주체심리학의 과학적 근거라며 끌어들이는 것이다.

주지하듯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해 온 위력한 지도사상이다.³⁹⁾ 그런데 주체사상은 초기부터 확고한 사상이므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따른 변화를 거쳤다. 주체사상의 시원이 1930년 6월이라는 북한의 주장은⁴⁰⁾ 지도사상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것이며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의 연설에 기원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⁴¹⁾ 주체사상이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 심화·완성되었다는 설명도⁴²⁾ 1997년 황장엽의 망명 이후 달리 해석될 가능

39) “지도사상은 당, 국가 및 그 밖의 일정한 조직과 인민들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되는 사상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1569쪽.

40) 1930년 6월 30일, 만주 길림성 장춘현 카룬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 회의’에서 김일성이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며,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당조직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정영철,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3호(2015), 63쪽.

41)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은 당 선전선동일꾼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다. 최완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176쪽.

42) “나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새로운 자주시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왔으나 주체사상의 원리를 종합체계화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이 문제는 김정일동지

성이 제기되었다. 그가 주장한 대로 주체사상의 이론화에 깊게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나, 이후 김정일이 황장엽류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지속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역할이 중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⁴³⁾

당시 김일성은 중국 및 소련의 지속적인 간섭과 종파투쟁 등의 영향을 받아 ‘자주노선’을 강조했으나⁴⁴⁾ 이후 - 황장엽의 주장대로라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 주체사상은 인간중심론에 의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주체사상의 핵심에 자리한 것이다. 그 후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권력과 이상화를 강화하고 충실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가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장악함에 따라 인간 중심에서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변모했다. 여기에 수령이 뇌수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가미되고, 인민대중은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혁명이 가능하다는 인간개조이론 또한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정통성을 계승하지만,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사상의식’에 차별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주체사상의 독보적 지위라 강조하였다. 이는 - 소련심리학에서 과학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던 - 관념론적 성격이 짙어졌을 뿐 아니라, 상부구조인 사상의식이

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김일성전집』, 제9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132쪽.

43) 정영철,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58쪽.

44) 당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으로 탈스탈린주의, 동유럽의수정주의 등의 사회주의 진영의 변화와 더불어, 소련파 및 연안파와의 갈등 등, 김일성의 불안정한 권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결정은 자신의 항일혁명투쟁의 전통을 강화하고, 반대세력을 사대주의, 교주주의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권력은 차츰 강화되었다. 위의 글, 63쪽.

〈표 1〉 주체사상의 변화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도	김일성	황장엽	김정일	김정일
상황	사회주의권 격변과 권력투쟁기	정권안정기	권력세습 준비기	사회주의권 격변과 정권위기
특징	반사대주의 주체사상	인간중심론 주체사상	수령중심론 주체사상	우리식사회주의 (반외세주의, 민족주의, 수령중심론 주체사상)

자료: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이 정리한 것을 일부 수정·인용했다.⁴⁵⁾

토대를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구성하는 식이라는 논리로 재구성되어 맑스-레닌주의와 모순됨을 의미한다. 이후 199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등, 위기감이 고조되어 반사대주의, 인간중심론, 수령중심론이 혼합된 주체사상은 반외세주의와 민족주의의 특성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주체심리학의 핵심에 자리하는 주체사상은 체제를 결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확고한 지도사상이다. 그런데 그 면면에는 주체심리학이 교육현실 개선이라는 요구로 개발되었음에도 여전히 미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난다. 일례로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인간개조 사업을 통해 물질 생활을 건설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사상의식을 규명함으로써 맑스-레닌

45)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 12쪽.

주의로부터 진일보하였다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상충된다.

또한 인간개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전히 북한의 열악한 교육문제로 인한 화두를 재생산할 뿐이었다. 인간개조는 사상의식 교양과 선전선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 분야는 교육이라고 강조한다.⁴⁶⁾ 인간의 발전에 소질, 환경, 실천 등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⁴⁷⁾ 나아가 주체사상에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 제시하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설명함에 있어, 인간의 발전을 위해 지적 능력을 강조한다. 인간 발전에 관여하는 정신적 활동 능력인 지적 능력이 높아야 사물 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여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실천 활동도 과학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현실 개선이라는 중대한 요구로부터 태동한 주체심리학의 주된 사업 방법이 다시 교육으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련심리학과는 다른 ‘우리 형편에 맞는’ 고유의 심리학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끌어들이기에 관념론적 성격이 짙어져 실생활 개선을 위한 응용과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 인간개조와 물질생활 건설 방법이 모두 교육으로 수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 아니라, 당

46) “교육은 사람들에게 객관세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시키며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세워주고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한다.”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14~15쪽.

47)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김일성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373쪽.

시의 취약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상향으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북한의 교육 현실이 여전히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주체심리학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

북한의 대내외 정치적 지형 변동은 <표 1>의 주체사상의 변화로 요약되듯 그대로 북한 심리학에 반영되었다. 북한이 자주노선의 길을 걷게 된 1960년 초반 소련의 선진 심리학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인 것이라 배격되었다(1단계). 이후 심리학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1960년대는 북한 심리학의 공백기라 할 수 있다. 이후 1974년 발간된 『사회주의심리학』에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주체사상의 과도기적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2단계와 3단계). 인간중심론과 수령중심론이 명백히 분리되어 구성되었음이 그 영향이다.⁴⁸⁾ 1988년 발간된 『심리학개론』은 당시 북한의 대외인식이 반영되어 반사대주의, 반외세주의, 민족주의적 성격이 가미되었다(4단계). 주체심리학은 『사회주의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인간중심론의 일부 특징을 제외하면(2단계), 수령중심론과 인간개조이론이 일관되게 관철된다(3단계). 2000년 발간된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기로 인해 반외세주의, 민족주의,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으로 구성되었다(4단계).

북한은 주체심리학의 의미를 소련의 선진 심리학에서 진일보한 진

48) 3장의 혁명적 세계관과 4장의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 품모는 수령중심론의 주체사상이, 그 외에는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이 자리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집단주의, 사상의식에 대한 강조는 3장과 4장에서만 나타나며, 그 밖의 장에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중심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정한 과학이라고 주장한다.⁴⁹⁾ 그러나 과학으로서의 요건은 사실 빈약하다. 소련심리학이 관찰법, 실험법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우연을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방법론을 강조한 반면, 『사회주의심리학』은 오직 주체사상에 근거했다는 자신들의 논리만을 앞세운다.⁵⁰⁾ 실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천 학문도 아니므로 주체심리학을 통한 교육현실의 개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듯 『사회주의심리학』 발간 이후 《로동신문》 등의 공간 문헌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없었다.⁵¹⁾ 독자적으로 심리학을 개발하였지만 이를 교육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라 평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⁵²⁾ 1953년 교육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심리학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사회주의

49) 『사회주의심리학』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과학적 근거로 삼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인간의 사상의식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던 맑스-레닌주의를 보완·계승하여 완성시킨 진정한 과학이다.

50) 어떠한 과학적 성과나 실험연구의 소개, 생리적 작용에 대한 설명,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학적 근거이자 주된 논지로서 주체사상 ‘리론’만을 제시하므로, 응용심리학과 이론심리학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파생물이라 평가할 만하다.

51) 독자적으로 탄생시킨 성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교육에 적용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음은 매우 이례적이며, 1986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그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리재순, “감정의 본질과 심리적 특징,” 『사회과학』, 제2호(1986).

52)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개발 이후인 2005년까지 여전히 ‘건설 중’인 것으로 표현된 것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성과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심리학은 오늘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실천에 복부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를 지닌 과학으로서 선행로동계급의 심리학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심리학으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반영된 심리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사회주의심리학건설의 근본초석,” 김호남, 『교원선전수첩』(2005), 20쪽.

심리학』에서 아동 심리발달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주체심리학은 소련 선진 심리학의 영향과 그와 관련된 고민의 흔적을 담고 있다. 주체심리학이 맑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계승하며 주체사상의 확립을 통해 이를 완성해 낸 것이라면, 소련심리학의 일부 핵심 내용이 포함될 법도 하다. 그러나 주체의 길을 택한 이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소련 학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탓에, 주체사상을 과학적 근거로 삼아 『사회주의심리학』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였다 내세를 필요가 있었던 듯하다. 소련심리학을 비판하거나 반박하지 않을 뿐, 고등 신경생물학이나 파블로프의 학설 등의 주요 이론과 연구 성과 등은 일체 배제되었다.

흥미롭게도 1988년의 『심리학개론』에서 주체심리학의 뚜렷한 변화가 관찰된다. 그것은 소련심리학과 주체심리학을 병합한 구성으로 나타났다.⁵³⁾ 이는 1980년대 초부터 소련과의 동맹과 친선을 강조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⁵⁴⁾ 소련의 선진 학문과도 거리를 두려

53) 『심리학개론』은 크게 1편 일반심리학과 2편 사회심리학으로 나뉘는데, 1편 일반심리학은 소련심리학의 이론에 적절한 북한식의 보완과 윤색을 추가하였다. 예컨대 성격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이어 반동적 성격론에 대한 비판을, 재능의 형성발전에 이어 재능에 대한 부르조아심리학리론 비판을 추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2편 사회심리학은 계급과 민족심리, 연령과 집단별 심리를 제시함으로써 주체심리학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당위적인 지향과 사상이론을 제시하는 등, 『사회주의심리학』의 전개 방식과 동일하다.

54) 《로동신문》을 통해 다른 여느 국가들과 같이 소련의 정황을 소개하던 태도에서, 소련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조소친선은 튼튼한 계급적동맹관계와 동지적우애에 기초하고있으며 오랜 력사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소련인민과의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소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던 주체의 길에서, 조소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를 용인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그 병합에 있어 과거 일방적인 수용이라는 시행착오의 경험이 반영된 듯, 소련심리학을 북한 실정에 맞게 가공하고 주체사상을 추가하여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주의심리학』이 주체사상의 사상이론적 파생물에 불과했던 반면, 『심리학개론』은 과학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려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소련심리학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관련 실험과 예시 등을 제시하는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주체심리학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모습도 차츰 관찰될 수 있었다.⁵⁵⁾ 나아가 민족심리, 계급심리, 사회소집단 심리가 추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비슷한 시기 민족주의와 반외세주의를 주체심리학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확인되는데,⁵⁶⁾ 이러한 주체심리학의 변화는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남한과의 체제 경쟁 등, 불안정한 대내외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과거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던 소련심리학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주체의 길을 택한 이후 거리를 두었다. 오랜 공백기 끝에 주체사상을 끌어들이어 만들어 낸 주체심리학에서 소련심리학은 배제되었으나, 조소친선 강화로 인해 소련심리학을 재도입할 명분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형제적소련인민과 영원히 어깨걸고 함께 나갈 것이다.” 리재필, “발전된 사회주의사회의 완성을 위한 소련인민의 투쟁: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 67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제11호(1984), 44~46쪽.

55) 주체심리학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려는 논의들은 다음을 참고. 리재순, “감정의 본질과 심리적 특징,” 『사회과학』, 제2호(1986); 리재순, “주체사상이 밝힌 의식과 구조에 대한 리해,” 『철학연구』, 제2호(1990).

56) 안명옥, “민족심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4호(1988); 남승일, “부르조야심리학에 대한 비판,” 『철학연구』, 제3호(1988).

마련되었다. 그 결과 주체심리학은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선진학문과의 병합을 통해 보다 체계적·과학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불안정한 정세가 반영되어 민족주의 및 반외세주의적 특징도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심리학자들이 학술지를 통해 주체심리학을 보완·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이다. 주체심리학의 이러한 변화는 그것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되지 못한 채, 대내외 정세의 긴밀한 영향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북한의 심리학은 1950년대부터 교수교양 개선을 위해 요구되었기에, 아동심리학의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 있었다. 『심리학개론』에서 연령별 집단의 사회심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을 다루었으나 이는 소련심리학을 재구성하거나 개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주체심리학이 교육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실천 학문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2000년 발간된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주체심리학의 한계를 보다 명백히 드러낸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심오한 아동심리사상’에 기초하였으며, 교육부문의 활용을 위해 개발하였다고 명시한다.⁵⁷⁾ 북한 교육문제의 오랜 갈증과 기대를 담고

57)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과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데 나서는 심리학적문제들을 옹게 푸는 것이다”(전극내·최정순·전사흠, 『사회주의아동심리학』, 2쪽).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로작 <주체의 문학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어린이들의 육체적발달의 특성과 풍부한 교육교양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우리 나라 아동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었다. (중략)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아동심리학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심오한 아동심리사상에 기초하여 새 세대 교육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는 주체의 아동심리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장성옥, “주체의 아동심리학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업적,” 『교원선전수첩』, 제4호(2004), 35쪽].

있었던 만큼 여러 문헌을 통해 주체심리학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소개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무렵부터 주체심리학을 ‘불멸의 업적’으로 내세우거나 인민대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벌일 것을 주문하였다.⁵⁸⁾ 개인의 특성, 즉 기질 및 성격, 생물학적 차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며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등 수령 중심의 주체심리학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하여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인간개조사업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사회주의심리학』 역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었지만,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반면 2000년 이후 인민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고 선전선동하기 위해 심리학을 활용하려는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적 풍토가 확산되어 이완된 북한 체제의 위기감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특징은 먼저 그 구성에서 소련 심리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에 있다. 지각과 표상, 사고와 상상, 기억, 주의 등의 인지적 특징과, 욕망, 감정 등, 소련심리학 및 서구의 현대심리학과 동일한 구성을 통해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정립을 의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은 주체심리학의 인간관을 선형적인

58) “군중심리를 안다는것은 바로 군중에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속 느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환히 안다는것을 말한다. 선전선동활동은 군중의 이러한 심리에 맞게 진행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중심리를 잘 아는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김성철, “군중심리를 잘 아는것은 선전선동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4호(2001), 31~36쪽.

방식으로 기술하던 것에서, 생득적이거나 후천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변화가 나타난 점이다.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상의식이 영유아 시기부터 소학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시기 전 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하의 개인이 세계와 물질 토대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졌으며, 그에 부합하는 사회와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⁵⁹⁾ 마지막 특징은 주체심리학의 한계와 관련된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 역시 주체심리학의 핵심인 주체사상의 변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⁶⁰⁾ 개인의 정서와 인격 특징은 사상의식의 지배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정치도덕적 감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아동들이 부합할 때 기쁨과 행복, 자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은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이 강화된 결과이다.⁶¹⁾

59) “인민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 되었을 때 자랑과 기쁨과 만족을 체험할뿐 아니라 소년단분단이 모범이 되었을 때 커다란 자랑과 기쁨을 느끼며 자신이 남에게 뒤떨어졌거나 모욕을 당하였을 때 분하게 여기고 자기 분단이 다른 분단에게 뒤떨어질 때 수치감을 느낀다. 또한 인민학교학생들은 남조선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미제침략자들과 전두환군사파썸불한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한다. 고등중학교학생들속에는 정치도덕적감정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면서 혁명적량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국내 최정순 전사후, 『사회주의아동심리학』, 105쪽.

60) 개인의 이상과 가치, 도덕관이 아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으로 설명됨으로써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할 뿐 아니라, 아동 개인의 욕구나 감정은 상대적으로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억압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나 체제이완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61) “성격은 매 사람에게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징과 그의 개성적표현이다. 사상정신적 특징은 세계관 즉 사상에서의 특징이다. 사람들은 사상에서 차이가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얼마나 높은가, 당성과 계급의식이 어느 정도 투철한가. 조국과 민족에 대

이처럼 『사회주의아동심리학』 역시 주체사상에 종속된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교육 부문에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동 심리를 당위적인 사상이론으로서만 제시하되, 교육과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은 여전히 미흡했다.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은 아동들의 심리적내용과 특성, 그 형성발전의 합법직성을 밝히는 심리학의 한 분과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아동심리학》 교수를 소학교 각 과목교수법지식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략)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의 목적은 아동들의 나이심리적특성을 연구해명하여 교수교양의 심리학적기초를 주자는데 있다. (중략) 《사회주의아동심리학》에서 취급하는 아동심리현상들은 매우 고급하고 추상적이며 학생들이 리해하는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구체화하기 힘들어하며 교육과 결부하여 활용하기 어려워한다.⁶²⁾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이 ‘매우 고급하고 추상적이기에’ 이해가 어렵다는 평가는 1953년 소련심리학을 직역하여 도입했던 당시의 평가와 유사하다. 2000년 초반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을 적극 장려하던 것에서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주체심리학을 회의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심리학 요구는 교육개선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주체심리학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주체

한 궁지와 자부심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책, 95쪽.

62) 백명철, “소학교 각 과목교수법지식과 결부된 《사회주의아동심리학》교수의 중요성,” 『교원선전수첩』, 제3호(2010), 44쪽.

사상의 삽입, 소련심리학의 재도입 등 주체심리학의 변천 과정에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끼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주체심리학은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천 학문으로 형성되지 못한 채, 사상이론으로 남게 됨으로써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였다.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교육 개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북한은 주체심리학의 추가적인 개발과 활용에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³⁾

4. 나가며

북한의 심리학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체심리학의 태동 배경부터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주체심리학이 서구의 현대심리학을 배경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소련심리학마저도 거리를 두었다 재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주체사상을 핵심 근거로 삼았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다양한 한계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주체심리학은 주체사상의 사상이론적 변용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부문의 질적 향상에도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서구의 현대심리학을 차츰 도입한 이후 주체심리학은 어떠한 변화를 보일까? 체제결속과 사상통제 목적의 사상이론으로서 그 흔적을 유지하되, 교육 부문에는 현대심리학, 그중 소련의 것을 재구성하여 도입할

63) 서구의 현대심리학을 일부 수용하며 북한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분석은(김경미, "북한심리학의 형성과 변화연구," 80쪽), 주체심리학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른 피치 못할 결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인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북한의 심리학 요구가 교육학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이는 이미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으며 체제이완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설립 초기부터, 남한과 달리 이북 지역은 인민의 문맹률이 높고 고등교육 기관과 지식인이 부족했다. 국가 건설을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은 교육 환경 개선으로 극복하여야 했기에 심리학의 필요는 절실했다. 그러나 남한과 달리 심리학자가 부재한 이북의 사정은 심리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주체심리학의 개발은 북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소련심리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던 시행착오의 결과였다. 소련심리학만을 비판하지 않고 현실 조건을 문제 삼았다면 수십 년간 공허한 사상이론이었던 주체심리학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다. 나아가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개발한 탓에 인간중심론과 수령중심론, 반외세주의, 민족주의 등 다양한 성격이 덧씌워졌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도사상인 만큼, 주체심리학 역시 북한의 대내외 정세변화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련의 것과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부담은 오히려 모순을 야기했다. 수령이 뇌수로 상징되며 인민 대중을 지도하는 사상적 핵으로서 기능한다는 아이디어는 주체사상이 파블로프의 생리학과 유기체론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사상의식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맑스-레닌주의와 상충하는 오류로 남았다.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내외 정세의 영향에 종속된 채 탄생한 주체심리학의 한계는 명백하다. 우선 주체심리학은 현실 여건을 개선할 수 없는 주체사상의 사상이론적 파생에 불과했다. 북한 심리학의 요구가 교육의 질적 제고였으나 그 요구는 충족되지 못했다. 또한 주체심리학은 북한의 정세인식에 영향을 받았기에 이론적으로 불안정하다. 주

체심리학은 전체주의를 지탱하는 수령 중심의 집단주의를 강화하도록 개인을 규율하므로 봉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주체심리학에 민족주의와 반외세주의, 반사대주의를 이식시켰다. 주체사상을 끌어들이는 결과 내부에 가치의 충돌과 상호모순을 배태한 사상이론으로 남은 채, 교육문제 개선이라는 초기의 절박한 요구와 멀어졌다.

본 연구는 북한에 심리학이 도입된 초기 사정부터 『사회주의아동심리학』이 발간된 2000년까지를 중심으로 주체심리학의 변천과정과 태생적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과 조소관계, 주체사상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으나 그 밖의 주요 변인을 정밀히 고려하지 못한 채, 표피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큰 한계이다. 또한 사범대학의 심리학 교재 위주로 개괄하는 수준에서 분석하며, 그 세부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 역시 지면의 한계를 탓하기에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체심리학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시기의 사료를 상세히 살피지 못했던 점도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후속 과제로 미루었지만, 본 연구는 그간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 주체심리학의 변화의 맥락과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2000년 이후 북한 심리학의 변화·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기반을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는 북한의 심리학을 우리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거나 주체심리학이 인민의 사상의식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접수: 3월 7일 / 수정: 4월 5일 / 채택: 4월 12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교육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_____,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리재순, 『심리학개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증보판)(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아·아·스미르노브(A. A. СМІРНОВА), 『심리학』, 리본녕 옮김(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전국내·최정순·전사흠, 『사회주의아동심리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_____, 『김일성전집』, 제9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4: 철학』(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1954~55).

집필위원회, 『사회주의심리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4).

홍순원, 『조선보건의사』(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2) 논문

김성철, “근중심리를 잘 아는것은 선전선동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학』, 제4호(2001).

김호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반영된 심리사상과 이론은 주체의 사회주의심리학건설의 근본초석,” 『교원선전수첩』, 제1호(2005).

남승일, “부르조야심리학에 대한 비판,” 『철학연구』, 제3호(1988).

리재순, “감정의 본질과 심리적 특징,” 『사회과학』, 제2호(1986).

_____, “주체사상이 밝힌 의식과 구조에 대한 리해,” 『철학연구』, 제2호(1990).

리재필, “발전된 사회주의사회의 완성을 위한 소련인민의 투쟁: 로씨야사회주의 10월혁명 67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제11호(1984).

백명철, “소학교 각 과목교수법지식과 결부된 <사회주의아동심리학>교수의 중요성,” 『교원선전수첩』, 제3호(2010).

안명옥, “민족심리의 본질,” 『철학연구』, 제4호(1988).

장성옥, “주체의 아동심리학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업적,” 『교원선전수첩』, 제4호(2004).

3) 신문

『교원신문』, 1957년 3월 9일; 1960년 1월 27일; 1960년 2월 13일.

『로동신문』, 1946년 11월 14일; 1947년 5월 6일; 1948년 10월 9일; 1950년 5월 20일; 1951년 9월 14일; 1951년 10월 10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서울: 한백사, 1988).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1).

2) 논문

김경미, “북한 심리학의 형성과 변화 연구: 『교원선전수첩』 기사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_____, “교원선전수첩에 나타난 북한의 심리학 특징 분석,”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2019).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아세아연구』, 제98호(1997).

김익현, “주체사상 체계화 이후 북한철학에 나타난 변화와 이론적 특징,” 『통일인문학』, 제50권 2호(2010).

도홍렬, “사회주의 심리학의 비판,” 『북한학보』, 제8권(1984).

배영기, “북한 교육현실과 ‘사회주의심리학 교재’ 비판,” 『북한』, 제184권(1987).

- 심의용, “식민지 시기 『심리학교과서』와 계몽,” 『대동철학』, 제91집(2012).
- 정근식·김윤애·임수진,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 리뷰』, 제7권 1호(2017).
- 정영철, “주체사상의 순수 이데올로기화와 새로운 실천 이데올로기의 등장,”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3호(2015).
- 유연실, “1950년대 중국의 파블로프 학설 수용과 의료 체계의 변화: 보호성(保護性) 의료 제도의 확립을 중심으로,” 『의사학』, 제29권 2호(2020).
- 이병창, “해방 이후 북한철학사: 의식, 문화, 도덕, 심리에 관한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5권 2호(1994).
- 이주환, “1945~1949년 북한에서의 문맹퇴치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2005).
- 이훈, “북한철학의 흐름,” 『시대와 철학』, 제5권 2호(1994).
- 차재호, “한국심리학의 발전과정과 현재,” 『한국사회과학』, 제27권(2005).
- 최완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사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3).
- 한선희·김옥주,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보건의료계 사상투쟁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제22권 3호(2013).

A Study on the Demands and Changes of the Juche Psychology in North Korea

Lee, Hyungjo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transition process of Juche psych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North Korea and the influence of the Juche ideology on the formation of Juche psychology and its characteristics. After Korea's liberation, psycholog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ducation wa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cy of privat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northern region, but manpower and resources to support this were all lacking. The advanced psychology of the Soviet Union was unfortunately difficult to reflect in the reality of North Korea. Eventually, the political decision of North Korea to choose the path of Juche among the great power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poor education led to the development of Juche psychology. However, because the transitional nature of the Juche idea was reflected as it is following Kim Jong Il's power succession, Juche psychology remained only an unstable theory. Although North Korea

was in desperate need of knowledge about psychology, and the demand for child psychology to overcome educational problems has existed for a long time, Juche psychology merely became an extension of the Juche philosophy to strengthen the ideological consciousness centered on the supreme leader, and could not be useful in real life. In this way Juche psychology developed independently by North Korea was formed as a supreme-leader-centered psychology that reinforced nationalism. This study intends to promote greater interest in and research on North Korean psychology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change in Juche psychology.

Keywords: North Korea, Juche Idea, socialist psychology, Juche psychology, human transformation